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보 도 자 료	KPIPA 책을 만들고 나누고 읽는 모든 사람을 위해

보도일자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자	2025. 3. 28.(금)	배포	대외협력팀 이민주 대리 063-219-2746/ minju@kpipa.or.kr
첨부파일	발제자 사진 1부 토론회 사진 1부	담당	출판콘텐츠팀 안지향 차장 02-3153-3110/ jh@kpipa.or.kr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5년 세종도서 지원 사업 공청회 열어… '출판문화 발전 모색'

- 3월 26일(목) 오후 2시 마포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개최
- '2024년 세종도서 지원 사업'을 돌아보고 향후 개선방향 모색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지난 26일(목) 오후 2시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세종도서 지원 사업 공청회'를 열고 개선방향 및 출판문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 이번 행사는 ▲2024년 세종도서 지원 사업 결과 보고 ▲주제 발표 ▲패널 토론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김진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콘텐츠팀장이 '24년도 사업 결과 보고'를 통해 운영절차 및 추천기준 주요 변동 사항을 중심으로 세종도서 추천과 보급 결과를 공유하였다.

□ 뒤이어 '우리에게 세종도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장동석 출판도시문화재단 사무처장이 발표를 진행한 후,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논의하기 위해 출판계, 독서계, 독자 인사로 구성한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다. ▲홍영완 세종도서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신정민 교유당 대표이사 ▲이정수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안찬수 책읽는사

회문화재단 상임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 장동석 출판도시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세종도서 지원 사업’이 출판사의 출판 의욕을 증진시키고, 보급처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세종도서 브랜드를 구축하고 기존 선정 도서와 연계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편성된 예산이 오로지 책 구매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며, 책과 관련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공공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의 주요 쟁점은 ‘세종도서 지원 사업’의 운영 안정성 확보이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정부의 문화재정은 증가했으나, 세종도서 예산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선종 종수와 국내외 보급처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정민 교유당 대표이사는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추천위원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정수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은 독서 진흥을 위해 ‘세종도서 지원 사업’ 보급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본 사업의 목표인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독자와 만나는 활동에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이슈가 도출됐다.

□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은 세종도서 민관협의기구인 세종도서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및 협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첨부자료】세종도서 지원 사업 공청회 발제자 사진, 토론회 사진 각 1부.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콘텐츠팀 김진우 팀장(☎ 02-3153-28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서 지원 사업 공청회 발제자 사진】

【 세종도서 지원 사업 공청회 토론회 사진】